

생물인류학 연구와 관련지어 본 조선시대 나병 환자의 삶과 죽음

신동훈¹, 신은경²

¹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²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사회복지학과

A Life and Death of the Leprosy Patients in Joseon Society Considered from the Anthropological Perspective

Dong Hoon Shin¹, Eun-kyoung Shin²

¹Department of Anatomy, Seoul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 Leprosy is an important topic in the research field of bioanthropology and paleopathology. In this study, by reviewing historical documents, we are to investigate the life and death of leprosy patients during Joseon period. In historical records of Korea, though many leprosy patients suffered from being casted out of the Joseon society, some lucky patients spent the rest of life at home, fully supported by their family and relatives. Although these cases might not represent the entire leprosy patient, when they died, the family buried them politely according to the Confucian ritual commonly practiced at the time. Actually, very few leprosy cases in Korean history have been reported from anthropological studies so far. The present review shows that the discovery of leprosy patients from ancient human skeletons in Korea is not entirely hopeless.

Keywords : Leprosy, Joseon period, Paleopathology, History

서론

나병은 신경계와 호흡 기계를 침범하며 이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뼈에 심각한 손상과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얻어진 옛사람 뼈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 생물인류학(bioanthropology) 및 고병

리학(paleopathology)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의 하나이다. 해외 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를 보면 옛사람 뼈에서 나병 흔적을 찾아 그 감염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보고하거나 나병균 진화에 대한 유전적 근거를 분자생물학적으로 밝혀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1-4].

나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고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이 확실하여 이르게는 성서 시대에 이미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유럽의 경우 11~13세기 동안 나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가 17~18세기 들어서 갑자기 쇠퇴하였다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 이러한 나병 발생률의 급격한 역사적 변화는 항생제나 백신의 발명 등 의학 발전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질병사 연구자들에게도 큰

*이 연구는 2019년도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연구자문장려 정책의 도움을 받아 수행되었음.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May 6, 2019; Revised: June 10, 2019; Accepted: June 10, 2019

Correspondence to: 신은경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사회복지학과)

E-mail: fiat87@dankook.ac.kr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5,6].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나병이 급격히 쇠퇴하게 된 원인으로서는 환자의 격리수용, 사회생활 수준의 향상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었지만 그중에서도 17~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결핵 대유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주목을 끌었다[6]. 이에 따르면 결핵과 나병은 그 발생률이 급증하자 이전까지 창궐했던 나병은 반대로 그 발생률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결핵과 나병이 같은 *Mycobacterium* 속에 속한 병원균으로서 서로 간에 교차면역(cross-immunity)이 있다는 사실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결핵을 앓으면서 생긴 환자의 면역이 반대로 나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두 질병이 역사상 동시에 창궐하기 어렵다는 것인데[6-12], 도시화가 진행되면 결핵 감염률이 상승하는 대신 별다른 조치 없이도 나병 발병률은 급감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역사적으로 결핵과 나병 발생률 변화가 역 상관관계를 이루는 현상이 존재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전술한 유럽사의 경우와 다른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는 서구 제국보다 근대화 발전 추세가 상대적으로 늦은 이상 도시화 때문에 결핵이 늘고 나병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어느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벌어졌을까 하는데 대해 역사학적 검토 없이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굴한 옛사람 뼈나 미라를 조사하여 그 시대의 질병과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생물인류학 및 고병리학 연구는 나병 발생의 역사적 변천을 우리 역사에서 실증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는 연구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적지 않은 옛사람 뼈를 고고학 현장에서 발굴 보존하여 이를 대상으로 옛사람의 건강과 다양한 질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나병에 관한 고병리학적 근거도 우리나라 사람 뼈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인류학적 보고는 의외로 현재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나라는 감염성 질환 사망자를 집단적으로 매장하는 전통이 드물고 나병 환자가 머무는 집단거주 지역(leprosarium)도 역사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매장된 나병 환자 뼈가 같은 현장에서 대량으로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 옛사람 뼈

대부분은 조선시대 가족 공동묘지 발굴 중 수습된 경우가 많은데 발병 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추방되기 일쑤인 나병 환자 개체가 과연 당시 묘지에 정상적으로 매장되어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만약 조선시대 나병 환자의 경우 당시 정상적인 방식으로 매장이 불허되거나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앞으로 소수의 사례라도 나병이 이환된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를 묘지 구역에서 고고인류학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된다.

결국, 이에 대한 해답은 조선시대 나병 환자들이 발병 후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사망 후에는 정상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역사 문헌에서 그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관련 조선시대 역사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그 시대 나병 환자의 삶과 죽음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묘지 구역에 대한 생물 인류학 및 고병리 연구에서 우리나라 나병에 관련한 사례 발견 및 연구가 향후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은 이들이 소록도로 수용되기 시작한 20세기 초부터 비교적 자세해진다. 환자들을 이 섬에 강제 격리 수용하는 과정에서 감금, 폭행 등 많은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이 기록에서 밝혀졌고 1963년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권리가 가까스로 보장되기 시작했지만[13-15] 이런 자료만으로 우리나라 나병 발생의 역사적 변천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한국사 문헌 검색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나병을 뜻하는 癩로 하였으며 관련 기록은 해동역사(海東譯史), 택당선생별집(澤堂先生別集),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방산선생문집(舫山先生文集), 성재선생문집(性齋先生文集), 향산집(響山集), 동주선생문집(東州先生文集), 목재집(木齋集), 우복선생문집(愚伏先生文集), 유연당선생문집(悠然堂先生文集),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얻어졌다. 기록에 나병이라고 서술된 경우도 당시 전통의학 수준으로 볼 때 유사 질병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본 연구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한글 번역은 DB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채용하되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사료는 필자가 직접 번역하거나 문장을 다듬어 논문에 수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한국고전종합DB를 검색한 결과 우리 역사서에서 나병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술이 보이는 문헌은 한치윤(韓致胤)의 해동역사(海東譯史)인데 일본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라는 기록을 인용하여 우리나라 삼국시대 나병 환자의 존재를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문헌-1] 이 해에 백제국에서 온 사람은 나병으로 고생하여 그 모습이 몹시 추하였으나 산악의 모양을 잘 만들었고 또 긴 다리를 만드는 데도 교묘하였다. 이에 여러 나라에 파견하여 삼하입경장교(三河入脛長橋), 수내곡교(水內曲橋), 목습제교(木襲梯橋), 원강빈명교(遠江濱名橋), 회진암천교(會津闇川橋), 두암원교(兜巖猿橋) 등 180개 다리를 만들게 하였는데 오고 가는 길이 이로써 처음으로 개통되었다.(海東譯史 卷第 41, 交聘志 9, 通日本始末) “是歲百濟國來人 煩癩病 其體醜 而能構山嶽之形 又巧懸長橋 遣于諸國 懸三河入脛長橋 水內曲橋 木襲梯橋 遠江濱名橋 會津闇川橋 兜岩猿橋等 百八十橋 往還道路始通”

이는 삼국시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귀한 사료이지만 이후 우리나라에 나병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어 그 후의 상황은 잘 알 수 없다. 한편 조선시대 들어오면 나병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의 선행 연구[16]에 자세하다. 1885년 알렌이 기술한 의학 보고서에도 구한말 조선 왕국에는 ‘모든 종류의 나병이 아주 많다(중략) 찾아온 많은 환자들은 거지였고 나병으로 인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잃었다.’라고 기술하여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에 이미 나병 환자가 상당수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17]. 조선시대에 이미 나병이 드물지 않았다면 그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문헌 기록에 따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반응은 조선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이 질병이 감염자로부터 전염 가능한 질병이라고 인식되어 있었고 일단 감염되면 그 사람은 정상 생활이 다시는 불가능할 정도로 폐인이 된다는 우려가 큰 이유였던 것 같다.

[문헌-2] 간질병을 중한 병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기(氣)와 혈(血)의 운행이 모두 잘못되어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나병이나 온역(瘟疫)처럼 밖에서 들어와 쉽게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방(醫方)을 보면(간질병 환자는) 크게 경계시키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우리)나라 풍속이 간질 증세를 지극히 혐오하기 때문에 나병과 다름없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멀리 피하는 것입니다. “顛癩之症 謂之篤疾 此乃氣血俱敗所

致 非如癩癘疫癘從外而入 易爲傳染也 非但醫方所不戒以理推之 亦當然矣 特以國俗深惡其症 無異癩癘 避而遠之者多矣”(澤堂先生別集 卷之三, 疏, 乙酉冬擬上疏)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나병 환자가 사회로부터 받은 대접은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균(許筠)이 저술한 문집(惺所覆瓿藁)에 실린 글(南宮先生傳)을 보면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경우에도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이를 기피하고 심지어는 내다 버리기까지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문헌-3] 나는 上洛의 큰 집안의 자손으로(고려시대) 태사(太師) 권행(權幸)의 증손자였다. 송(宋) 희령 2년(1069)에 태어나 열네 살에 나병에 걸렸는데 부모가 나를 거두지 않고 숲속에 버렸다. “我卽上洛大姓子 大師幸之曾孫子也 生於宋熙寧二年 十四有風癩 父母不收 棄之林中”(惺所覆瓿藁 卷之八 文部五 南宮先生傳)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은 당시 문헌을 보면 걸인이 되어 구걸하며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거나 주변으로부터 격리된 집단으로 밀려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불법적 행각을 벌이기도 하는 등 삶이 전반적으로 매우 비참해진 듯하다.

[문헌-4] 겨울에 나병 환자가 구걸을 하며 밤에 마을 어귀에 누워 숨이 막 끊어지려 하였는데 돌아가신 부친께서는 새로 바깥에 쉼 집을 지어 그 나병 환자를 불러 들어와 쉬게 하고 이튿날 아침에는 밥을 먹여 보냈다. “冬月 有癩者行乞 夜臥巷口 呼寒欲絕 府君新作外舍 卽招使入宿 至明饋而送之.”(舡山先生文集 卷之二十二, 行狀)

[문헌-5] 나병에 걸린 여자가 있어 혼자 밭 사이에 있는 집에 살며 아침저녁으로 밥을 구걸해 왔는데 올 때마다 잘 대접하였다. 하루는 같은 마을 여러 부녀자들과 들판에 나갔는데 나병에 걸린 여자가 그동안 대접해 준 것을 감사히 여겨 개울물로 밥을 씻어 바가지에 가득 담아 물과 함께 바쳤다. 다른 부인들은 모두 놀라 피했는데 홀로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말하기를 “저 사람이 성심껏 내게 바친 것인데 내 차마 안 먹을 수 없다” 하였다. “有女癩 獨處田間屋 朝夕來丐食 輒厚饋之 一日與同閨諸婦女 出視田野 癩女心甚感德 就溪澗滌飯 與所盛匏 和水以進 諸婦女皆驚避 獨食盡一器曰 彼誠心獻我 不忍不食.”(舡山先生文集 卷之十九, 丘墓文)

[문헌-6] 젊었을 적 일찍이 밖에 나갔을 때 수풀 속에서 어린애 우는 소리를 들어 놀라 들어가 보니 나병 환자 2명이 막 어린애를 죽여 자기 병을 치료하려 하고 있었다. 그 까닭

을 힐난하여 물으니 너무 기근이 심하여 아이 부모가 자기들에게 팔았다고 하였다. 공은 이를 측은히 여겨 그 돈을 배상해 주고 아이와 그 어미를 집에 거두어 겨우 살아나게 하였다. “少時嘗出行 聞林藪中嬰兒啼聲 驚怪而往視之 有癩者二人 將殺小兒以治病 詰其所由則曰 歲饑其母賣之 公惻然乃償其價 以兒母子付之店舍 傾橐以給之 使之哺活.” (性齋先生文集 卷之二十三, 墓碣銘)

[문헌-7] 한 번은 백씨(伯氏)가 인산영당(仁山影堂)을 철거했다가 엄한 처벌을 받게 된 일이 있었다. 공이 백씨를 변호하기 위해 밤에 안현(鞍峴)을 넘어가는데 나병 환자(癩人) 수십 명이 말을 약탈해 가 버렸다. 그런데 잠시 뒤 사죄하고 말을 돌려주면서 “저희들이 실성(失性)하였다고는 하나 그래도 인륜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공이 가는 길을 보호해주었다. (響山集, 卷之十三, 墓碣銘, 贈嘉善大夫戶曹參判耻齋曹公墓碣銘 并序)

[문헌-8] 제주 안무사(按撫使)가 아뢰기를, “본주(本州)와 정의(旌義), 대정(大靜) 등지에 나병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일단 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전염될까 두려워하여 바닷가 사람 없는 곳에 버려 두니(환자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바위 벼랑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명을 끊으므로 진실로 불쌍합니다.” “濟州按撫使啓 州及旌義 大靜 癩疾興行 若有得疾者 惡其傳染 置于海邊無人之地 不勝其苦 故墮巖崖以隕其命 誠可憐憫.” (世宗實錄 110권, 世宗 27년 11월 6일, 4번째 기사)

[문헌-9] 제주가 바다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나병이 많았는데 비록 부모 처자라 하더라도(일단 환자가 되면) 서로 전염될 것을 무서워 하여 사람 없는 땅으로 옮겨 두고 스스로 죽기를 기다렸다. 기건(奇虔)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바위 아래에서 신음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 보니 과연 나병 환자였다. “且州在海中, 人多癩疾, 雖父母妻子, 亦恐相染, 徙置無人之地, 以待自斃. 虔行部至海濱, 聞巖下有呻吟聲, 視之果癩者.” (文宗實錄, 文宗 1년 4월 2일)

[문헌-10] 제주인 사노(私奴) 일동(一同)은 그 아내 니을망(泥乙望)과 함께 전 남편의 아들 정신도(鄭伸道)를 목 졸라 죽였고, 또 니을망(泥乙望)에게는 열살 짜리 나병 환자인 딸이 있었는데 관에서 나병 환자는 바닷가로 옮기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딸을 데리고 해변에 가서 밀치니 그 딸이 손을 잡고 슬피 우는 것을 억지로 밀쳐 언덕으로 떨어져 죽게 하였다. “濟州人私奴一同 與其妻泥乙望 縊殺前夫之子鄭伸道 又泥乙望有十歲女癩疾 聞官徙癩者于海濱 率其女到海岸擠之 其女攀手哀號 強擠之墮岸死.” (世宗實錄 41권, 世宗 10년 8월 30일)

위 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이 병에 전염될까 두려워하는 같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그들이 속한 향촌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추방되었던 경우가 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헌-10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료이다. 여기 보면 1428년 제주도 나병 환자를 관에서 바닷가로 강제로 옮기게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 시대라고 해서 정부가 나병 환자들에게 호의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 사료를 제외하면 조선시대 사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국가에서 나병 환자를 강제적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주도적으로 빈번히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의외로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나병 발병 후에도 전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진히 구호한 가족들의 경우 유교 윤리적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표창한 경우가 보인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들 문집을 보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나병에 걸린 후에도 그 인연을 정리하지 않고 이전과 다름없이 대하는 것을 높은 덕행으로 칭송한 경우도 있다. 나병을 일종의 천벌로 생각했던 서구 문명권과 달리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나병은 고약한 질병일 뿐 이것이 환자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문헌-11] 평소 서로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중년이 되어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렸다. 그의 친구와 친척 할 것 없이 모두 이를 피하여 보지 않으려 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오가며 서로 안부 묻기를 병이 걸리기 전과 다름없이 하였고 심지어는 같이 식사를 같이하는 것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주변에서 물으면 돌아가신 부친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찌 평소에 서로 상대하던 의를 저버리고 병에 걸려 목숨이 사생 경각에 달렸을 때 하필 절교하겠는가” 하였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항상 감읍하였다. “友人有素相切者 中年不幸病癩 親戚故舊莫不厭避不見 先考往來顧問如舊 至於相對飲食 無異平日 或疑而問之 先考曰 斯人之有斯疾 非其罪也 吾何忍負平素相許之義 而絕之於疾病死生之際乎 其人常感泣.” (悠然堂先生文集, 卷之四)

[문헌-12] 친구가 나병에 걸려 심하게 오래 앓았다. 친척들이 이 병이 좋지 않은 병이고 잘 전염되기 때문에 만나기를 피하여 보지 않았는데 공은 홀로 가서 식사를 평소처럼 같이하며 말하기를 평생 서로 사모하며 살았는데(이렇게) 죽을 때가 되니 절교하겠는가 하였다. 그 사람이(이 말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故人病癩久劇 親戚以其陋疾且善薰染 避去不省 獨公過從 飲食如他日日 平生相慕用 謂何臨死生乃欲相絕耶 其人聞之感涕.” (東州先生文集, 卷之八, 誌銘)

[문헌-13] 벗 중에 나병을 앓는 자가 있어 친구들이 모두 피하여 만나지 않았다. 공은 홀로 전처럼 왕래하고 서로 마주 대해 먹고 마시고 하였다. 사람들이 혹 의아해 물으면, 공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 것은 그 사람 죄가 아니다. 어찌 차마 평소와 서로 허락하였던 의리를 저버리고 병으로 생사가 경각에 달린 때 절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항상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有執友病癩 親舊皆避不見 公獨往來過從如舊 至於相對飲食人或疑而問之 公曰 斯人之有斯疾 非其罪也 何忍負平素相許之義 而絕之於疾病死生之際乎 其人常感泣.” (愚伏先生文集, 卷之十八, 碣銘)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신분이 높은 경우 설사 나병에 걸리더라도 향촌 사회에서 이들을 가버이 추방할 수 없었고 더욱이 가족들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호하고자 한다면 환자가 발병 이전과 크게 다름없이 자기 집에서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조선 사회 나병 환자 모두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추방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나병에 걸렸더라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축출되지 않고 여생을 보낸 사람들의 경우 불행히도 병마로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 홍여하(洪汝河)의 문집인 목재집(木齋集)권 8 행장에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일생에 대해 쓴 기록인 조고부군가장(祖考府君家狀)이 있는데 여기에 종조숙부 홍호약(1577~1663)이 홍여하의 조부(홍덕록)에 대해 회고한 장면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

[문헌-14] 백부(홍여하의 조부 홍덕록)는 손아래 누이 네 명이 있었는데, 장녀는 영산(靈山)에 사는 신씨(辛氏)에게 시집갔다. 신씨가 나병에 걸리자 그의 동생 일곱 사람은 서로 전염될까 두려워 샘물이나 등불을 같이하지 않아서 신씨는 아내를 데리고 부군에게 와서 의지했다. 부군은 형제끼리 지붕을 맞대고 살면서 조석으로 보살피고 음식과 잠자리를 서로 주선(周旋)하였는데, 오로지 손님이 올 때만 일어나 피하게 했다. 신씨가 감읍(感泣)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오히려 어려운 일인데, 어찌 처의 형제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라고 했다. 몇년 뒤 신씨가 죽자 상여(喪輿)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서 나병 환자인 신씨가 사망한 후에 상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보면 그는 환자가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정상적인 유교적 절차에 따라 정중히 매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기록은 문헌 기록에 더 보인다.

[문헌-15]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인 이여(李畚)가 죽었

다. (중략) 불행히도(그의) 어머니가 나병에 걸렸는데, 이여가(형) 치와 함께 밤낮으로 병 구완하여 옷도 벗지 않고 처자도 물리치고 몸소 곁에서 간호하였다. 몇 해를 이렇게 하였으나 마침내 어머니가 죽어 형제가 슬퍼하며 예(禮)를 극진히 하였다. “侍講院文學李畚卒 不幸母遘癩疾 畚與菑晝夜侍藥 不解衣帶 屏去妻孥 親自扶護 如是者數年 竟至不救 兄弟哀毀盡禮.” (중종실록 101권, 중종 39년 1월 15일, 3번째기사)

[문헌-16] 안지의(安止義)가 나병에 걸려 몇 년 동안 두 눈이 멀고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는 벗겨진 것과 같고 지체(支體)에는 피가 흘러 악한 냄새가 풍겨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데도(첩) 지지는(남편을) 꺼리지 않고 섬겼다. 안지의(安止義) 눈에 예막(醫膜)이 있었는데, 혀로 핏기를 무릇 19년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안지의가 죽자 집 동산에 빈소를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몸소 음식을 바치고 애도하여 3년상을 마쳤다. “止義得癩疾 數年兩目盲 髮毛脫 皮膚如剝 支體血流 有惡臭 人不能近 芷芝事之不憚 止義眼有翳膜 以舌舐之 凡十九年 未嘗少懈 及止義歿 殯于家園 朝夕親奠 哀悼三年” (성종실록 15권, 성종 3년 2월 18일, 4번째기사)

문헌-15와 -16에서 사망 후 슬퍼하며 예를 다 했다는 것은 당시의 성리학적 규범으로 볼 때 유교적 의례에 충실한 방식으로 매장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문헌-16의 경우 사대부가 아니라 평민인데도 남편이 죽자 삼년상까지 치른 것을 보면 나병 환자를 가족들이 극진히 보살피고 죽은 후에도 예장한 경우가 반드시 성리학적 윤리에 충실한 상류층에서만 국한하여 볼 수 있었던 일은 아닌 셈이다. 실제로 나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라 해도 가족의 시신을 제대로 매장하지 않으면 인륜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를 거스르는 행위는 다음 문헌과 같이 엄벌하였던 경우도 있다.

[문헌-17] 금부도사(禁府都事)가 자기 아버지 시신을 불태운 정득춘(鄭得春)을 잡아왔다. 정득춘은 남원(南原)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나병으로 죽었다. 어떤 이가 이르기를 ‘그 시체를 태우면 자손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여 득춘이 마침내 아버지의 시체를 불태웠다. 그 극도로 흉악함은 이전에 듣지 못한 것이라(그를) 추국(推鞠)하여 정형(正刑)하였다. “禁府都事拿來 燒其父屍 罪人鄭得春 得春 南原人 其父死於癩 有言 ‘燒其屍則不染於子孫,’ 得春遂焚之 其窮凶極惡 前古所稀聞 推鞠正刑.”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8월 4일, 1번째기사)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에도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소외

된 사람들이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문헌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나병 환자들의 삶과 죽음의 양상은 천차만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부랑인이 되거나 범법자가 되는 등 사회의 최하층으로 전락하여 고통받는 처지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나병 환자가 된 후에도 이전의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죽을 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보낸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는 대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집안의 사람들이었으나, 이 경우 많았던 것 같지만 평민들 중에도 나병 환자 투병 간호와 사후 장례를 가족들이 훌륭히 수행한 경우도 확인된다. 국가권력이 나병 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데 주력했던 서구 국가들과 달리 유교 사회인 조선 왕국은 나병 환자를 집안에서 구호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를 장려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나병 환자가 최종적으로 사망하면 가족 묘지에 정중히 매장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선시대 상류층이 매장된 회곽묘 등 무덤에서 생전에 나병 환자인 경우를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외 연구에서도 나병 환자 보고는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사례로 다루어질 만큼 흔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조선시대 사람 뼈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인류학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목적인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본다.

REFERENCES

1. Kjellström A. Possible cases of leprosy and tuberculosis in medieval Sigtuna, Sweden. *Int J Osteoarchaeol.* 2010; 22: 261-83.
2. Rubini M, Erdal YS, Spigelman M, Zaid P, Donoghue HD. Paleopathological and Molecular Study on Two Cases of Ancient Childhood Leprosy from the Roman and Byzantine Empires. *Int J Osteoarchaeol.* 2014; 24: 570-82.
3. Lunt DA. The First Evidence for Leprosy in Early Mediaeval Scotland: Two Individuals from Cemeteries in St. Andrews, Fife, Scotland, with Evidence for Normal Burial Treatment. *Int J Osteoarchaeol.* 2013; 23: 310-8.
4. Mendum TA, Taylor GM, Donoghue HD, Wu H, Szalontai C, Marcsik A, et al. The genome sequence of a SNP type 3K strain of *Mycobacterium leprae* isolated from a seventh-century Hungarian case of lepromatous leprosy. *Int J of Osteoarchaeol.* 2018; 28: 439-47.
5. Roberts C, Manchester K. *The archaeology of diseas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6. Lietman T, Porco T, Blower S. Leprosy and tuberculosis: the epidemiological consequences of cross-immunity. *Am J Public Health.* 1997; 87: 1923-7.
7. Chaussinand R. Quelques remarques concernant la theorie de l'antagonisme entre tuberculose et lepre. *Int J Lepr.* 1966; 28: 484-5.
8. Chaussinand R. Tuberculose et lepre, maladies antagoniques. *Int J Lepr.* 1948; 16: 431-8.
9. Chaussinand R. Tuberculosis and leprosy: mutually antagonistic diseases. *Lepr Rev.* 1953; 24: 90-4.
10. Fine P. Leprosy and tuberculosis - an epidemiological comparison. *Tubercle.* 1984; 65: 137-53.
11. Orme IM, Collins FM. Efficacy of *Mycobacterium bovis* BCG vaccination in mice undergoing prior pulmonary infection with atypical mycobacteria. *Infect Immun.* 1984; 44: 28-32.
12. Palmer CE, Long MW. Effects of infection with atypical mycobacteria on BCG vaccination and tuberculosis. *Am Rev Respir Dis.* 1966; 94: 553-68.
13. Kim MO, Choi SY. A Biographical Research on Lives of Korean Women with Leprosy. *Kor J Soc Welf Stud.* 2013; 44: 239-66.
14. Yang YK. Life Experiences of Korean Patients with Hansen's Disease in Sorok Island Hospital. *J Korean Acad Nurs.* 2014; 44: 639-48.
15. Park HC. Hundred Years' Sorokdo: Based on the Medical Training Center and Literacy Activities. *J Sorokdo National Hospital;* 2016. p. 7-30.
16. Kim SS. Joseon sidae jeongi (Chapter 4). In: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Hangeuk Jeonyeombeongsa. Seoul: Koonja Publishing Co.; 2009. p. 190-200.
17. Yeo I. *Allen eui euiryo bogoseo,* Seoul: Yeoksagonggan; 2016.

간추림 :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나병 환자의 삶과 죽음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나병 환자들의 삶은 다양하여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아 사회 최 하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던 반면 발병 후에도 가족들과 남은 여생을 무난히 보낸 경우도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 권력이 나병 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데 주력했던 서구 국가와 달리 유교 국가인 조선은 나병 환자를 집안에 두고 구호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경우에 따라 이를 장려하기도 했기 때문에 환자가 최종적으로 사망하면 가족들이 당시 통용된 의례에 따라 묘지에 정상적으로 매장한 경우도 드물지 않았던 것 같다. 생물 인류학 및 고병리학 분야에서 나병은 중요한 연구 주제이지만 우리나라 옛사람 뼈에서 그 흔적이 학술적으로 보고된 경우는 현재까지 매우 드문데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무덤에서 발굴되는 사람 뼈 중에 생전에 나병 환자였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찾아보기 낱말 : 나병, 조선시대, 고병리학, 역사학